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시각예술론

안용준(백석대학교)(문화/예술 3-4)

논문초록

이 글이 지향하는 목적은 종교개혁 시기에 진행되어온 시각예술의 특징들을 마틴 루터의 관점에서 구성해 보는 것이다. 특별히 이 글이 종교개혁 시기의 예술적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당시 시각예술이 걸어온 길이 이미지의 미신적 숭배와 일면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은 성경의 계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찰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선한 창조물로 보존되어야 할 예술작품이 인간의 욕망의 영향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술 세계의 추함을 극복할 수 있는 미학적 변혁의 가능성은 성경 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적 성취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점도 밝혀질 것이다.

주제어: 시각예술, 미신적 숭배, 루터성경, 소통, 그리스도인의 자유,

I. 여는 말

이 논문은 종교개혁 시기에 진행되어온 시각예술의 특징을 마틴 루터의 관점에서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종교개혁 예술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한국의 예술학계에서 있어 왔으나 한국의 많은 예술이론가들에게는 아직도 소외된 연구의 영역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종교개혁 예술을 마틴 루터의 시각에서 서술함으로써 종교개혁 시각예술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밝혀내고자 한다. 기독교미술의 과거를 아는 일이 그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하는데 이 논문이 기여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시각예술의 형성에 중요한 배경이 되는 16세기 전반기의 종교개혁사를 참고하면서 면죄부의 판매와 이미지의 미신적 숭배를 반성하여 당시 시각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반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시각예술이 형성되었나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될 것이다. 내용별로 요약하면 첫째, 종교개혁을 전후로 한 이미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시각예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가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면죄부의 판매와 이미지의 미신적인 숭배를 통한 시각예술의 왜곡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루터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당시의 전통적인 미술가들에게 놀라움과 경이였을 것이며 성경적 세계로의 예술적 탐험이었을 것이다. 둘째, 루터에게 있어 성경이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이야기할 것이다. 왜 루터가 기독교적 정신을 포함하는 서양의 예술 정신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렇게 된 원인이 성경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논의할 것이다. 셋째, 루터의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각예술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다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루터의 주요 번역인 루터 성경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종교개혁 예술사 안에서 루터의 위치를 정리하는 뜻에서, 시각예술 형성(形成)의 과정을 성경 계시의 관점에서 반성(反省)하여 우리의 마음을 추슬러 보고자 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기독교미술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과거의 역사 안에 숨 쉬고 있다고 확신한다.

II.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이미지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종교개혁’은 왜 일어났을까? 이름이 주는 뉘앙스처럼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지적하고 단순히 도덕적인 갱신을 시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기독교 본래의 신앙을 흐리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도록 신앙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였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흐리게 하는 동기 중 하나인 숭배되는 예술적 이미지는 치유해야 할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북유럽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기독교 본래의 신앙을 가로막는 이미지들이 얼마나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있는지를. 이 일들이 이제 교회와 사회 전반의 이슈가 될 만큼 커져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끌어 가는 직접적인 계기는 면죄부의 판매와 이미지의 미신적인

승배였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이러한 일은 있었다. 종교개혁 이전의 시기에도, 이미지의 승배는 가톨릭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이 사실은 이미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사의 노동에 관하여」¹⁾라는 저술 속에서도 나타난다. 당시에 이미 여기저기에 순교자의 성유물이라 선전하며 관심을 모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Calvin 1543: 15). 그들은 비열하고 몰염치한 시장을 열고 한판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현실에 깊이 탄식했다. 그 무렵부터 여러 곳에서 채집한 골을 성자의 유골이라고 부르면서 순진한 사람들을 믿게 하여 기만을 거둬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왜 루터에게서 이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는가? 이것은 교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성경과 신앙에 근거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대로 무르익어 갔다는 말이다. 사회의 실제적인 문제였고 모든 계층의 관심사가 될 정도였다.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 중의 하나가 성유물이란 이름의 이미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였다. 또한 교회에 성물을 기증하기도 했다. 이로써 비텐베르크 성과 대학 교회에는 많은 성유물이 기증되고 매년 공공에 전시되었다. 이 때 특별한 사면이 이루어졌다.

당시 루터는 수도사로서 세상에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는 비텐베르크대학교의 신학부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서서히 면죄부에 대한 논쟁에 의미를 두게 된다. 그는 고요한 독방에서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역사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다. 면죄부에 대한 루터의 논쟁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한 면죄부에 있었다. 면죄부의 판매는 독일에서도 시행되었다.

급기야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Julius II, 1503-13)는 일을 내고야 만다. 로마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완전 면죄부’(Plenarablaß)를 공고 했던 거다. 그의 후계자인 교황 레오 10세는 이 일을 확대 계승했다. 메디치(Medici)가 출신인 레오 10세는 자신의 가문에서 익힌 상업적 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그의 위세는 독일의 막테부르크(Magdeburg)와 마인츠(Mainz)에서도 이어졌다. 1515년 3월 31일 그는 지역의 대주교인 알브레히트에게 마인츠·막테부르크·브란덴부르크에서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한 ‘완전 면죄부’를 8년간 판매할 수 있다고 허가했다. 실제로 ‘완전 면죄부’는 교황이 직접 제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에 관계하였다. 이 면죄부를 판매할 동안에는 다른 모든 면죄부는 폐지되었다. 이 면죄부에 대한 설교 때문에 다른 모든 설교는 중단되어야 했다. 이 면죄부에 대한 방해는 법으로 금지되었다(Brecht, 1986: 177).

이와 같은 상황을 이끌어 가는 주인공이 또 있었다. 도미니크 소속의 수도사, 테첼(Johann Tetzel, 대략 1465-1519)이다. 그는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교황의 면죄부를 선전하고 다니고 있는 터였다. 그의 설교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은 연보례 앞으로 나아가 헌금을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이때 받은 면죄부는 천국으로 가는 통행증이 되는 거다. 현재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에 이러한 의식을 매우 고상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해갔다. 드디어 1517년 4월 테첼은 삭소니 선제국(Elektorat Saxony) 경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수많은 비텐베르크 시민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 그곳으로 발길을 재촉했다(Stitz, 1970:

1) 400년 무렵의 저작 *De opere manchororum*

58-59).

이 일은 루터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루터는 즉시 여러 주교들에게 이 일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혀 반응이 없자 그는 당시 가톨릭교회의 잘못된 면죄부를 향한 태도를 95개 조항으로 조목조목 정리했다. 원래 이 논제는 세상에 공포하려는 의도나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먼저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하려고 했다. 그래서 정리한 글을 브란덴부르크의 주교 제롬과 대주교 알브레히트에게 발송했다. 이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다(Stitz, 1970: 59).

그리하여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 교회(Schloßkirche)의 정문에 격문을 붙이게 되었다. 한 젊은 수도사의 진리를 향한 열정은 한층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행동의 결과에 놀란 이는 다름 아닌 루터 자신이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의외로 대단했기 때문이었다. 이 소식은 보름 만에 온 독일로 신속히 퍼졌으며, 6주 후에는 온 유럽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김영재, 2000: 394). 면죄부의 부당성에 대하여 온 세상이 개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루터의 외침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10월 31일은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Alleheiligenfest, 11월 1일) 바로 전날이었다. 11월 1일에는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신앙심과 열정을 모아 수집한 성유물 수천개가 성 교회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다. 이 화려한 축제를 위해 독일 전역에서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들었다. 이 자리에서 비텐베르크 시 교회의 설교가인 루터가 면죄의 효력에 대해 설명을 해 줄 것(Disputation zur Erklärung der Kraft des Ablasses)²⁾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루터는 11월 1일부터 이 논제를 외부에 보내기 시작했다. 뉘른베르크에서는 뉘첼(Kaspar Nützel)이 12월에 독일어로 이 논제를 번역하였다. 루터의 이 논제는 루터가 생각지도 못한 반향을 일으켰으며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95개조 반박문에 연이어 계속되는 루터의 운동에 시각예술은 깊이 관여되기 시작했다. 특별히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에게 있어 루터의 종교개혁은 자신의 예술적 방향을 확신케 하는 감동의 사건이었다. 그는 평소 성경 예술 자체의 의미를 연구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이다. 그가 네덜란드 젤란트를 여행할 즈음, 고국에서 들려오는 천지를 뒤덮을 것만 같은 소식은 뒤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이 역사적 사건은 그로 하여금 루터를 지지하게 만들었다. 루터의 성경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회화의 세계가 뒤러의 머리에 보다 상세히 그려지기 시작했다.

또한 종교개혁의 진행과정에서 한 몫을 담당하여 흔히 종교개혁의 화가로 불리는 미술가가 루카스 크라나흐(Lucas Cranach der Ältere, 1472-1553)이다. 크라나흐는 루터와 개인적 친분이 깊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그림제작을 통해 그의 가르침과 사상이 신속하고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활약하여 독일의 루터교가 자리 잡는 일에 기여 하였다. 1500년 무렵 북유럽에서 꽃피운 시각예술은 루터의 신학적 미학의 견해를 반영하였다. 종교개혁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독일에서 마티아스 그뤼네발트, 알브레히트 알트도르퍼, 한스 발둥 그리엔, 한스 홀바인 그리고 조각가인 틸만 리멘슈나이더 등은 이 활동의 이

2) 원제는 “면죄의 능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Disputatio pro declaratione virtutis indulgentiarum)이다.

예술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Pinder, 1940: 395).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겨우 상징의 사용만을 허용함으로써 이미지 사용에 관한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던 반면, 루터는 가톨릭교회와는 다른 의미에서 이미지의 종교적 사용을 지지하였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예술이 이렇듯 존립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다름 아니라 그것은 루터가 소유하고 있던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성경적 지혜 때문이었다.

III. 루터에게 있어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과 교회 전통이라는 이중적 권위의 틀로부터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있다는 사상에 이르는 루터의 여정은 매우 오랜 것이었다. 그는 14세 때에 약 500여 개의 성경 구절을 해석한 일종의 주해서를 구입하여 공부한바 있다. 그러나 에르푸르트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야 라틴어 성경책 완본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1501년경이었다. 그는 이 대학에서 날마다 한 장씩 낭독되는 라틴어 성경을 들을 수 있었고, 때로는 그 자신의 차례가 되면 순서에 따라 지정된 한 장의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1505년 7월 17일 루터가 에르푸르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자신의 성경책, 즉 빨간 가죽 표지의 라틴어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는 성경을 매우 열심히 탐독하였고, 성경의 내용에 익숙하게 되었다: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때로는 성경 몇 구절이 하루 종일 나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LW54, 1955: 13-14).” 비텐베르크에서 루터는 자신이 속한 수도회와 대학에서 보다 막중한 직위를 담당하게 되었다. 1512년 10월 18일에 루터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며칠 후에는 성경 연구학 정교수가 되었다. 이때에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해석하겠다는 서약을 했다.

1513년 8월 16일, 루터는 비텐베르크대학교에서 시편 강해를 시작하였다. 1515년에는 이 대학이 있는 비텐베르크 도시의 한 교회에서 설교자로 임명을 받는다. 같은 해에 이 대학에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였다. 그는 시편과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특히 시편 51편과 로마서 1:17절의 강해를 통하여 사람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 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각성을 통해 그는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감격을 경험하였으며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린 것과 느낌을 받았다. 올바른 성경해석을 향한 루터의 고뇌와 번민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의 동료 수도사나 제자들에게 매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1517년의 95개조 논제에서, 그는 교회의 보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였다. “교회의 진정한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가장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교회의 열쇠는 바로 그 말씀의 보배임을 말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LW31, 1955: 31).” 2년 후에 벌어진 라이프치히 논쟁은 신앙에 있어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루터의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쟁에서 요한 액크는 성경은 신앙생활에 두 번째 위치에 놓인다고 말하며, 교황권의 위치와 전통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는 로마교회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루터는 교황 직은 신약성경에도 나타나 있지도 않고 초대교회에도 없는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그것은 전통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나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고 수납할 수 있는 권위임을 높이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성경적인 기초 위에 루터가 구약의 우상숭배 금지를 이해하는 일은 자연스러웠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루터의 언행은 이미지 문제에 있어서도 거리낄 것이 없었다. 모세의 율법에서 조차 우상숭배 금지는 우상으로 숭배되지 않는 그림이나 조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다른 말로 표현해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혹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를 앞의 계명, 즉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야말로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과 결부되는 중심사상이며, 기준이며, 목표로 해석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로부터 루터는 “그림이나 조각은 우상숭배 없이 만들어 졌고 그러므로 그것들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중요하게 말씀하신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은 원래대로 보존된다.”고 해석을 내린다(Christensen, 1979: 50). 십자가 형상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금지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루터는 잘못 숭배되고 있는 성상은 폭동적인 무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질서와 권위에 의해서 행해질 경우 교회에서 제거될 수 있다고 하였다. 1524-25년 「하늘의 예언자에게 거역하고, 이미지와 성찬식에 관하여」(Wider die himmlischen Propheten, von den Bildern und Sakrament)에서, 이미지에 관해 길게 다루면서 급진적인 성상파괴자들과 맞서기 위해 성상에 대해 상당히 수긍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이미 1522년 “성만찬에서 두 가지(떡과 잔)를 받는 데 관하여”라는 제하의 설교에서 성상이 우상숭배로 기우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되 성상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여, 프로테스탄트 예술에 시각예술의 가능성의 길을 열어 놓았다(Luther, 1986: 229).³⁾

루터에 따르면, 사람들이 이미지를 느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을 ‘자연적인 인간심리 과정의 부분’(natural part of psychological process of man)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Belting, 1993: 519). 종교 예술은 이러한 인간의 성향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말하기를 “십자가와 성인들같이 기념 및 증거를 위한 형상들, 여호수아의 돌(수 24:26) 및 사무엘의 돌(삼상 7:12)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념과 증거를 위하여 그것들은 칭송할 만하고 귀중하다”고 본다(Christensen, 1979: 52). 또한 성경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그림은 성경의 글과 유사한 방법으로 교훈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기억을 돕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1521년 4월 18일 보름스(Worms) 의회에서 루터는 교회사에 길이 남을 유명하고도

3)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통치자들과 교사들의 승인 없이 혹은 부지중에 성상들을 험하게 다루었다. 그들은 실로 엄한 중벌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대로 놔두라. 우리는 주된 주제에 관심을 둘 것이다. 성상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놋뿔을 세워 높이 들이우게 할 것을 명하셨으며(민 21:8-9), 스랍을 황금 법피 안에 둘 것을 명하셨다(창 25:1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금하셨다(창 20:5).” 1522년 “성만찬에서 두 가지(떡과 잔)를 받는 데 관하여”라는 설교 중에서.

영웅적인 연설을 한다. 그는 이 연설에서 그가 로마 가톨릭교회와의 완전한 결별이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의 신학적 의지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잘 반영하여 주었다.

“나는 성경과 정상적인 이성에 의하여 정죄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어느 것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교황이나 교회 회의들의 주장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바 되었고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거슬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불안하고 위협스러운 일입니다(LW32, 1955: 112-13).”

이처럼 담대한 자세는 성경의 가르침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주장하는 루터의 믿음의 확신에서 나왔다. 이 연설문 속에서 ‘오직 성경’ 사상에 대한 루터 특유의 입장이 두 가지 면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나란히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성경 위에 놓여있는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철저히 부정했다. 다음으로, 예술의 근거로서의 성경의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면들이 루터의 성경을 근거로 하는 예술사상에서 볼 수 있는 일관된 입장일 것이다. 요약하면, 그의 미학은 그가 성경과 전통이라는 중세 로마교회의 이중적 권위의 입장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갔는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IV. 루터성경과 이미지

당시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성경의 계시에 대한 균형 있는 예술적 시각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의 한계를 엄청날 정도로 늘려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인 루터는 성경의 계시에 적합한 예술의 주제들에 관하여 논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종교개혁 예술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실로 예술이 성경의 계시 안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사람의 마음속에 환기시키고 기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이미지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과거 가톨릭 미학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형태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외의 다양한 성경 계시를 포괄하는 매력적인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당시 거의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교회 내 외부 장식조차도 무한한 이미지의 독해방식에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갔다. 1522년 비텐베르크에서 무력을 사용한 성상파괴가 한창일 무렵, 루터는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성경의 전 계시의 내용을 건물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히 북부 독일 교회의 벽과 난간에 장식된 일련의 이미지들은 루터의 그림성경이 면밀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특수한 경험을 제공하였다.

드디어 1522년 9월에 ‘9월 성경’(September Testament)이라 불린 그의 첫 번째 독일어 번역판이 세상에 나왔다.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설명하는 21개 목판화가 포함되었다. 이 성경은 12번의 인쇄를 거듭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으며 대중을 향한 종교

개혁의 확산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계속해서 1523년, 루터의 구약성경이 빛을 보게 된다. 루터의 히브리어 번역에는 젊은 비텐베르크의 개혁자, 멜랑히톤(Philipp Melanchthon, 1497-1560)을 포함한 몇몇 히브리어 학자의 도움이 필요했다. 여기에도 독일의 루카스 크라나흐에 의해 묘사된 판화가 실렸는데 이중 몇 작품은 루터 자신에 의해 표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그가 솔로몬성전을 묘사할 경우 그 세부까지도 놓치지 않고 구성해 내었는데, 이것은 그가 유대인의 이미지 사용 방법과 성경계시의 이미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Preuss, 1931: 20-21).

첫 번째 신구약 완결판은 1534년에 비텐베르크에서 출간되었다. 앞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우 보통 사람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구사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루카스 크라나흐 2세에 의해 완성된 123면의 판화도 루터는 하나하나 정성스레 감수할 정도였다. 루터성경의 편집인으로 오랫동안 봉사했던 크리스토프 발터(Christoph Walther)는 훗날 루터를 이렇게 회상했다. “루터는 주문하기를, 사람들이 성경본문의 내용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려야 합니다.”라고(Preuss, 1931: 22). 이처럼 루터는 사람에 감화를 주는 매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대중에게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운동에도 기여하게 된다.

루터가 독일에서 신약을 1522년에 마칠 때의 일이다. 그는 당시 성경 출판과 보급에 활발한 캠페인을 펼쳤는데 이때 보급된 성경 출판은 그의 설교보다 더 위력적이었고 급속히 전파되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몇 년간 보급된 성경은 소수를 위한 고가의 책으로 만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염가의 팜플렛으로 만들어 배포하였다. 루터교회는 성경의 내용을 시각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림 성경의 문맥 안으로 들어가 묘사된 내용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렇듯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루터가 믿음에 기초하여 성경 원문을 면밀히 살펴보았기 때문이었다. 독일어판 신약성경에서 루터는 종교예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이 책에 수록된 그림들은 기억과 보다 쉬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벽에 그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다른 유익한 내용들을 수록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들을 부끄럼 없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데에 의심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부유한 자와 힘 있는 자에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집안이나 바깥에 성경 전체를 그리자고 설득할 것입니다(Christensen, 1979: 52).”

루터는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문헌들에도 시각적 보조 자료를 넣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성경 주석이나 설교집, 기도서, 찬송가, 널리 유통된 교리문답집에는 목판화, 삽화, 장식들을 넣어 쉽고 아름답게 꾸몄다. 1529년 발간된 개인 기도서(*Personal Prayer Book*)에서 루터는 종교 예술에 대한 지지를 한층 더 직접적으로 표명했다. 이 책에서 특히 어린이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말씀이나 가르침보다 그림과 비유를 통해 배울 때 주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실 중세의 성경⁴⁾은 일

정한 장소에서, 또는 일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볼 수 있도록 제한되어져 있었다(Todd, 1971: 22).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평신도와 일반 성직자들은 성경을 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읽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경의 원어, 즉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도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 일부 발췌문 정도만을 구하여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평신도와 일부 성직자들이 라틴어를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 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성경의 계시가 이미지의 정보와 연관되는 현상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학적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당시 오용되고 있는 예술을 바로잡고 올바른 계시의 예술을 세우려 했던 루터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루터는 단지 예술의 필요성을 제안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제까지도 교회 내부에 구체적으로 디자인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1530년 루터는 시편 111편 강해에서 프로테스탄트 제단 판넬화의 적절한 주제 설정 문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단 위에 그림을 장식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만찬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다 금색 문자로 이러한 문구를 넣음직 합니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케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목전에 작품을 감상하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눈마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제단이란 성례를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보다 훌륭한 그림을 찾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Christensen, 1979: 54).”

루터가 제안한 이러한 주제는 초기 제단미술의 도상적 발전에 기여했다. 그것이야말로 장소에 부합하는 주제였다. 이처럼 종교적 시각예술에 대해 보인 루터의 계시의 예술은 각별한 것이었으며 나중에 뒤러와 크라나흐 등의 프로테스탄트 미술의 새 지평을 열고 우수한 작품을 한층 풍성하게 영글어 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V. 소통, 자유 그리고 사랑으로

루터는 언제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예술적 가능성을 제안하려고 애썼다. 당시 성경의 계시를 담아내는 도구로서 이미지의 활용이 과연 적절한 것이며 예술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소통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다.

그래서 루터는 예술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한다. 루터에게 있어서 예술이 소통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문제는 다른 한 가지 기능, 즉 예술의 교육적 기능의 가능성을 불러 일으켰다. 실제로 1528-29년 경 발표된 글들에서는 미술의 교육적 특성에 대해 강

4) 중세의 유럽에서는, 성경 사본이 대학교, 큰 수도원, 지방 수도원, 그리고 성당의 도서관 등에서 일하는 고위 성직자나 교육을 받는 학생들만이 볼 수 있었다. 그 사본은 라틴어로 쓰여진 별게이트 성경이었으며, 때때로 통치자와 법조인들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조하였다. 루터는 「교리문답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없으며, 성찬에도 참여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수공업자가 그의 일에 능숙치 못하다면 사람들이 그를 그 일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여겨, 내어 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양금희, 1999: 338).

교육을 ‘인간적인 책임’ (menschliche Verantwortung)으로 정의한 루터는 타당한 교육원리란 꾸준한 반복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보았다. 그는 특별히 시각예술이 성경의 메시지를 풍성히 쌓아가는 사람의 기억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수단으로 여겼다. 이리하여 말씀을 통한 소통의 중요성이 교회 성도에게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일에 루터의 절친한 동역자인 크라나흐와 마티아스 그뤼네발트(Mathias Grünewald) 등이 크게 기여하였다. 한 예로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표현할 경우 사실성 너머에 자리한,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이 가감 없이 우러나오도록 예시한 것이다. 시야를 가득 메우는 소스라칠만한 참혹한 광경은 중세에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다. 성경의 계시가 그 의미대로 전달되는 역사적 시기였다.

루터는 여기서 종교개혁 당시의 높은 문맹률을 생각했을 것이다. 한 마을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목사와 사찰에 불과했다는 것은 이미 당시의 문헌들을 통해서 넓게 확인된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당연시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혁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루터는 칼빈, 멜랑히톤과 같이 교육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졌으며, 이때 교육의 목표로 지향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각예술의 가치를 교훈적인 장치로서 이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마도 시각예술에 관한 서방교회에 의해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이론은 그것의 교육적 인식에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루터가 고려한 또 하나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의 예술’이다. 이것은 영적 참된 자유 함을 누릴 때 가능한 상태로 루터가 심도 있게 고려한 범주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술에 관하여 자유로운 선택과 창조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일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루터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지극히 자유로운 만물의 지배자이며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술에서도 드러나야 마땅하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분별한 자기 목적의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참된 소망과 영혼이 약동하는 예술을 이루는데 있어서 어떠한 욕심이나 어떠한 불의한 행위도 필요치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서 자유란 순수한 마음의 고백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1522년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행한 설교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루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향하여 이미지, 교회 혹은 제단을 지니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금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다(Christensen, 1979: 50). 그리스도인들이 형상을 지녔든 그렇지 않든 자유롭다. 형상

이란 그 자체로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사람에게 유익할 수도 있는 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며 또 그럴 수도 없다. 1522년 세 번째 설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 하나님에 의하여 명령되거나 금지된 모든 일들과 사물들, 즉 지존자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람은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도승이나 수녀가 수도원에 머무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아무에 의해서도 금지되어서도 안 됩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금지되면, 그 금지하는 일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금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유로워야 합니다(Luther, 1986: 443-44).”

이렇게 당시 루터의 견해는 성상, 종들(bells), 성찬의식의 제복, 교회장식, 제단의 촛불 등과 같은 것들은 바로 우상숭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위치를 갖는 것이다. 그 예술품에 투사하고 있는 이해와 지식이 성경적이냐가 관건이라는 말이다. 자유로운 선택과 사고가 진정한 창조성을 이룬다. 흥미롭게도 루터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전통 안에 매이는 데서 자유로워질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것으로부터 무분별하게 해방되는 자유가 아니라 창조적인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러한 루터의 설교가 이루어지기 전 비텐베르크의 상황을 살펴보자. 루터가 예술에 관한 성경적 시각의 소유자이긴 했으나 시대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 쉬워 보이지 않았다. 1522년 1월 27일 무렵부터 6개월 간 시 교회를 중심으로 비텐베르크는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상이었다. 다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폭력세력은 제단을 헐고, 이미지를 파괴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상의 부스러기까지도 불살라버렸다. 예술의 정서나 감수성은 사치스런 용어에 불과했다. 역사에 가장 먼저 기록된 프로테스탄트 성상파괴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루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보였다. 이 상황에서 설교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소리 없이 피신해야만 했다.

이 쓰라린 현실을 틈타 비텐베르크 시의 설교단에 주역으로 선 사람이 있었다. 그가 안드레아스 칼슈타트(Andreas Karlstadt)였다. 그는 루터와 함께 비텐베르크대학의 동료 교수였다. 그런데 이시기 그는 성상파괴의 선구자로 나서있었다. 성상파괴의 첫 이론가답게 “이미지의 제거에 관하여”라는 팜플렛에서 성상파괴의 신학적 근거를 성경에서 구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논지는 세상에 남아 있는 모든 형상을 제거함으로써 마음속에 깊이 드리워진 우상을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다.

보다 파격한 행동주의자로 알려진 성상파괴자도 있었으니 그가 비텐베르크의 가브리엘 쾰빙링(Gabriel Zwilling)이다. 1522년 1월 10일,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성직자들을

이끌고 어거스틴 수도원을 습격하여 나무로 된 제단은 물론 회화 조각작품 등을 끌어내려 불살라버렸다. 그 이전 12월 3일에는 에어푸르트로부터 날아온 일군의 학생들은 비텐베르크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제단을 파괴했다. 성탄절 이브,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은 시 교회와 성 교회의 창문을 깨뜨리고 성물들을 파괴했다. 그들은 스스로 종교예술품을 지향하는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거절했다. 이제 성상파괴는 16세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두 개의 시각을 발견한다. 성상파괴주의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종교개혁을 이루는 길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성상파괴로 인한 위험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상파괴를 자행하는 과격한 개혁자들이 일으킨 소란을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었다. 그는 이 위험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텐베르크로 돌아왔으며, 1522년의 설교를 통하여 ‘기독교적인 사랑’을 역설하였다. 루터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한 말을 상기시킨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공훈과 자비가 있거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 2:1-4)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사랑과 겸손의 실천을 통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놀라운 일은 시작된다.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며 유익을 구할 때 회복과 일치 역사는 일어난다. 루터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성상을 뜯어내며 파손하고 불태우는 외형적인 행위보다는 신앙 안에 굳건히 설 것을 상기시켰다.

“우리는 성상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와 교황 사이에 성상에 관한 문제로 크게 논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황제는 성상들을 추방할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성상들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자가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승리하고 황제가 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자유로운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Christensen, 1979: 45-46).”⁵⁾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모습을 상기할 것을 권면했다. 루터는 바울의 행위를 통해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기의 심중 깊은 곳의 믿음을 숨김없이 표출하였다.

“바울이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온갖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우상들을 때려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시장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보니 범사에 (우상에 대한) 종교심이 많군요’ (행 17:22). 그는 그들의 우상들에 반대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강제로 뒤엎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달려들어, 소동을 피우며, 제단을 헐고, 성상들을 뒤엎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제단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더욱 굳건하게 그것들을 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여러분

5) 루터는 황제 레오 3세가 발의한 우상 파괴 논쟁을 가리키고 있다. 레오 3세는 718년에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다. 교황 그레고리 2세는 이에 반대하였다. 마침내 이 논쟁은 843년에 결말을 보게 되었다.

들이 이곳에 있는 성상들을 뒤엎을 놓았을 지라도, 여러분들은 뉘른베르크에 있는 성상들과 세계 다른 곳에 있는 성상들을 다 뒤엎어 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 우리의 마음이 외형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믿고 있지 않는 한 그것들이 신앙에 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교해야만 합니다(Luther, 1986: 444-45).”

루터는 이미지가 오용되고 있는 곳에서조차 모든 성상을 뜯어내며 파손하고 불태우는 행위는 석연찮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의를 행하는 데도 역시 ‘기독교적 사랑’(christian love)이란 태두리 안에서 얻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VI. 닫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틴 루터 시각예술론의 특징은 면죄부의 판매와 이미지의 미신적인 숭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미지의 미신적 숭배는 예술의 왜곡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예술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무제약적 욕망과 미신적 숭배만을 대변하는 실체와는 거리가 멀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따라서 필자는 종교개혁적 입장에서 시각예술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본 연구를 통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이미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의에 대한 필자의 서술은 이 논의들이 성립되는 배경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집중했다. 종합해 보건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각예술론에 대한 논의는 성경계시의 구조와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루터의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시각예술 분야에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성경의 계시에 대한 균형 잡힌 예술적 시각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의 한계를 놀랄 만큼 늘려 놓았다는 사실이다. 루터가 그리스도의 형태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경계시를 포괄하는 루터성경을 대중에게 제시했다는 사실은 성상파괴가 한창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획기적인 역사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의 근거로서의 성경의 토대가 확고히 마련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시각예술이 작용했다고 보여 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성도들 간의 소통을 위한 예술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됨으로 인하여 확립되었다. 이 시기 사람들은 루터의 절친한 동역자인 크라나흐와 그뤼네발트 등의 기여에 힘입어 성경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었다. 초월적인 세계가 아닌 역사 안의 시각 작용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길이 더 크게 열린 것이다. ‘소통’을 위해 루터가 고려한 또 하나의 특징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의 예술’이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신념은 칼슈타트, 쾰링과 같은 프로테스탄트 성상파괴주의자들로 인하여 무참히 깨져 있었다. 이렇듯 이미지와의 완전한 결별이 성경적 희망이라는 외침에 루터는 자유로운 선택과 사고가 진정한 창조성을 이룬다는 사실을 포착해 내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루터가 종교개혁의 긴장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독교적 사랑’을 예술의 이론과 실천에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예술의 ‘창조성’은 그동안 재능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오류와 예술적 왜곡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겸손한 마음을 동반하는 '기독교적 사랑'이야말로 새로운 예술적 힘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재 (2000). 『기독교 교회사』. 서울: 이레서원.
- 양금희 (1999). 『종교개혁과 교육사상』.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양금희 (1996). “루터의 교육사상”, 『기독교교육 논총 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서성록 (2000). “종교개혁 미술론” 『인문과학연구』 제3집 . 안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Luther, Martin. (1953). *Luther's Works*. “Thesis 60 & 62” ed. Joroslav J. Helmut T. Lehman. vol. 31. Philadelphia, St. Louis: Fortress Prss.
- . “Table Talk, no. 116 in 1531, November” vol. 54.
- . (1986). 『루터선집』 7, 10권. 서울: 컨콜디아사.
- Bailey, Martin. (1995). *Dürer*. London: Phaidon.
- Bainton, Roland. (1950)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ew York: Abingdon Press & Cokesbury Press.
- Belting, Hans. (1993). *Bild und Kult, Eine Geschichte des Bildes vor dem Zeitalter der Kunst*. München: Verlag C. H. Beck.
- Brecht, M. (1986). *Martin Luther: Sein Weg zur Reformation: 1483-1521*.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 Calvin, John. (1988).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감중흡 외 3인 공역 (2002). 『기독교 강요』. 서울: 생명의 말씀사.
- Calvin, John. (1543). 『칼빈의 성유물에 대한 비판』. 김동현 역(1993). 서울: 솔로몬.
- Christensen, Carl C. (1979) *Art and the Reformation in Germany*. Athens: Ohio Univerity Press.
- McGrath, Alister E. (1992). *Reformation thought*. 박종숙 역(2002). 서울: 성광문화사.
- Panofsky, Erwin. (1955) *The Life and Art of Albrecht Dür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reuss, Hans. (1931). *Martin Luther, der Künstler*. Gütersloh : Bertelsmann.
- Pinder, Wilhelm. (1940). *Die deutsche Kunst der Dürerzeit*. Leipzig: E. A. Seemann.
- Spitz, Lewis W. (1970). *The Reformation*. 서영일 역(1997). 『종교개혁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Todd, John M. (1971) *Reformation*. Garden City, NY: Doubleday.